

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등이 있다. 세거 성씨로는 진주 강씨(晉州姜氏), 제주 고씨(濟州高氏), 현풍 곽씨(玄風郭氏), 안동 권씨(安東權氏), 봉화 금씨(奉化琴氏) 등 약 100여 개가 있다.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지역별로 다양한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이후에는 대도시로 이주하기도 하고, 생활 거처에 따라 유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현재는 집성촌이 많이 해체되었다.

제2절 관적(貫籍) 성씨

1. 평해 구씨(平海丘氏)

• 구대림(丘大林)

당상서(唐尙書)로 황학사(黃學士)와 같은 배[同舟]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평해읍 월송(月松) 북안(北岸)에 살다가 영양(英陽) 서천(舒川)으로 옮겨갔다. 현재 울진에는 후손이 한 가구[一家口]도 없다.

2. 울진 방씨(蔚珍方氏)

울진 방씨의 시조(始祖)인 방지(方智)는 온양 방씨(溫陽方氏)의 시조이기도 한데, 울진 방씨는 여기에서 분파된 것으로 보인다. 방지는 원래 중국 당(唐)나라의 한림학사(翰林學士)로서 669년(문무왕 9) 나당동맹(羅唐同盟)과 관련되어 사신으로 신라에 건너왔다. 이후 설총(薛聰)과 함께 구경(九經)의 회통(會統)을 국역하였고, 장씨(張氏)와 혼인하여 가유현(嘉猷縣)²에 정착하였다.

방지의 후손인 방운(方雲)은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후백제를 정벌하고 성종 대에 이르러 60여 년간 큰 공을 세워 벼슬이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이르렀으며, 993년(성종 12) 거란의 1차 침입 때 큰 공을 세워 온수군(溫水君)에 봉해지고 온양(溫陽)·신창(新昌)·아산(牙山)의 3읍을 식읍(食邑)으로 하사받았으므로 방운을 1세조로 하고 온양을 관향으로 삼았다.

2. 가유현(嘉猷縣)은 경상북도 상주시(尙州市)의 옛 이름이다.

이후 고려 충목왕(忠穆王)의 국구(國舅)인 온천부원군(溫泉府院君) 방언휘(方彦暉)의 3대손인 태부경(太府卿) 방유정(方有程)이 조선을 건국한 태조(太祖)로부터 벼슬에 들어오라는 초빙을 받았으나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는 충의를 내세워 이를 거절하였다. 그 탓으로 봉지(封地)를 몰수당하고 그 자손은 각 지방으로 흩어져 은거하게 되었으며, 그중 일부가 울진(蔚珍)을 우거지(寓居地)로 택하여 새로이 본관(本貫)을 삼았다.

3. 평해 손씨(平海孫氏)

• 손익담(孫翼淡)

입향 연도는 895년(진성여왕 9), 관직은 신라 병부대감(兵部大監) 평해군(平海君), 시조는 월성군(月城君) 손순(孫順)이다. 신라 진성여왕 9년에 평해군(平海君)으로 봉(封)하여짐에 따라 입향과 동시에 인관(因貫)하였다. 신라 육부촌장(六部村長) 중의 한 사람인 무산대수촌장(茂山大樹村長) 단례마(但禮馬)가 다른 오부촌장과 함께 박혁거세(朴赫居世)를 신라 초대 왕으로 추대하여 개국공신이 되었고, 32년(유리왕 9)에 그의 손자 직(稷)이 손씨로 성을 받음이 그 시초다. 그 후 세계(世系)가 실전(失傳)되고 후손 순(順)이 효행으로 835년(흥덕왕 10)에 월성군(月城君)에 봉해졌는데 공은 그의 손자다.

아들은 삼형제인데 맏이인 경상(景尙)은 월성군이며, 둘째 태상(泰尙)은 예부상서(禮部尙書), 막내 취상(就尙)은 이부상서(吏部尙書)다. 장손인 술조(述祖)는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지내고 평해군(平海君)에 봉해졌다. 묘소는 실전(失傳)하였고 후포면 후포3리 청구동(靑邱洞)의 승덕사(崇德祠)에 배향하고 있다. 자손분포는 울진군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입향 이후에 손휴(孫休) 정충공파(貞忠公派), 손영(孫英) 목이공파(木二公派), 손번(孫蕃) 동정공파(同正公派), 손조(孫肇) 녹정공파(祿井公派), 손상(孫尙) 부곡공파(富谷公派), 손인효(孫仁孝) 진사공파(進士公派), 손준(孫濬) 통진현감공파(通津縣監公派), 손주(孫澍) 희자공파(禧資公派), 손호(孫浩) 가평공파(加平公派), 손부(孫溥) 옥강공파(玉江公派), 손성효(孫成孝) 판결사공파(判決事公派), 위 파(派) 외에 이북 지역에 5개 파가 있다.

• 손인량(孫仁亮)

본관은 평해(平海)이며, 고려 원종(元宗) 때 관(官)이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로 임연(林衍)의 난(亂)에 공을 세운 공신으로 기성후(箕城候)로 봉(封)되어 들어와 살았다.

4. 평해 오씨(平海吳氏)

평해 오씨(平海吳氏)의 시조(始祖)는 오극중(吳克中)이다. 그는 고려 말 문하시중(門下

侍中)을 지냈으며,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에 추증(追贈)되었다. 시호(諡號)는 문양공(文良公)이며, 기성군(箕城君)에 봉(封)해졌기에 후손들이 본관(本貫)을 평해로 하였다. 그런데 『세종실록지리지』(1454)나 『동국여지승람』(1481) 등에서는 모두 평해군(平海郡)의 토성(土姓)으로 오씨가 보이지 않고, 1594년(선조 27)에 가서야 처음으로 과거 급제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15~16세기에 세거(世居)한 성씨로 추정된다.

5. 울진 임씨(蔚珍林氏)

• 임거남(林居南)

본관은 평택(平澤)이며, 울진군(蔚珍君) 우(祐)의 후손이며 조선조 현종 때에 입향하였다.

• 임우(林祐)

입향 연도는 1214년(고종 원년), 본관은 울진이고, 관직은 고려조에 등과(登科)하여 용호좌윤(龍虎左尹)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중부상서(中部尙書) 호종공신 울진군(扈從功臣 蔚珍君)이 되었고, 시호는 충경공(忠敬公)이다. 도시조(都始祖)는 당나라 문종 때 한림학사였다가 우리나라로 동래(東來)한 여덟 학사 가운데 한 명인 충절공(忠節公) 임팔급(林八及)이다. 입향사유는 울진군(蔚珍郡)을 채읍(采邑)으로 울릉군(蔚陵君)에 봉해짐으로써 자손이 인관(因貫)한 것이다. 묘소는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뒷산 건좌원(乾坐原)이다. 자손은 경북·강원·경기·충남북·서울·부산 등지에 분포하고 있고, 입향 이후에는 임이직(林以直) 울진파(蔚珍派), 임상직(林尙直) 고성파(高城派) 두 파가 있다.

• 임필기(林必起)

본관은 울진(蔚珍)이며, 충경(忠敬) 우(祐)의 후손으로 울진군에 들어와 살았다.

6. 울진 장씨(蔚珍張氏)

• 장말익(張末翼)

입향 연도는 1036년(정종 2), 본관은 울진이다. 관직은 문과급제(文科及第)로 호부상서(戶部尙書) 문하시중(門下侍中) 평장사(平章事) 상주국 삭방도안렴사(上柱國 朔方道按廉使) 울진부원군(蔚珍府院君)이고, 시호는 문성공(文成公)이다. 시조는 장정필(張貞弼)로 증시(贈諡) 충헌공(忠獻公)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삼한벽상(三韓壁上) 삼중대광(三重大匡) 아부공신(亞父功臣) 태사(太師)이다. 울진군을 채읍(采邑)으로 울진군(蔚珍君)에 봉(封)해짐에 따라 자손이 인관(因貫)하고 울진의 입향조(入鄉祖)가 되었다. 울진부원군으로

재직할 때는 깨끗한 행정으로 선정(善政)을 베풀었으므로 그 은혜와 신의가 널리 전 고을에 파급되어 그를 추앙하고 존중해 왔다. 1856년(철종 7) 이후 수백의 향유(鄉儒)가 주간(主幹)이 되어 울진 월계서원(月溪書院) 내 경덕사(景德祠)에 모시고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 조선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묘를 찾지 못하여 1774년(영조 47)에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남쪽 기슭 경좌(庚坐)에 제단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

자손은 울진(蔚珍), 예천(醴泉), 연안(延安), 청송(靑松), 삼척(三陟), 관북(關北), 서울, 대구(大邱), 부산(釜山)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입향 이후에는 장우(張祐) 용궁파(龍宮派), 장이(張珥) 연안파(延安派), 장흥석(張興碩) 청송파(靑松派), 장인행(張仁幸) 직장공파(直長公派), 장인숙(張仁淑) 낭장공파(郎將公派), 장천영(張天永) 삼척 강릉파(三陟 江陵派), 장천길(張天吉) 관북 부녕파(關北 富寧派) 등이 있다.

• 장한명(張漢鳴)

본관은 울진(蔚珍)이며, 음충순위전리판서(蔭忠順衛典理判書) 양수(良守)의 후손으로 기성면 정명에 들어왔다.

7. 평해 황씨(平海黃氏)

• 황감(黃堦)

본관은 평해(平海)이며, 해월(海月) 황여일(黃汝一)의 후손이다. 벼슬은 가의(嘉義)이다. 조선조 영조(英祖) 때 울진에 입향하였다.

• 황락(黃洛)

입향 연도는 28년(유리왕 5)이며, 관직은 한학사(漢學士). 중국 후한의 학사 황락이 28년(유리왕 5)에 교지국(交趾國)에 사신으로 가던 길에 풍랑을 만났고, 표류 끝에 평해읍 월송리 굴미봉 남쪽 기슭 월송봉(越松峰)에 상륙하여 신라에 정착함으로써 우리나라 황씨의 시조가 되었다. 묘소는 실전(失傳)하여 평해읍 월송리 굴미봉 아래 유허(遺墟)에 설단(設壇)하여 제사를 올리고 있다.

황락의 후대로 갑고(甲古), 을고(乙古), 병고(丙古)의 삼형제가 있었는데 갑고는 평해의 기성군(箕城郡), 을고는 장수관(長水貫), 병고는 창원군(昌原郡)으로 본관되었다. 평해 황씨는 고려태자(高麗太子) 검교(檢校)를 지낸 황온인(黃溫仁)을, 장수 황씨는 시중 황경(侍中 黃瓊)을, 창원 황씨는 황충준(黃忠俊)을 각각 본파의 1세로 분적(分籍)하여 세계(世系)로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입향 이후에는 갑고(甲古)는 평해파, 을고(乙古)는 장수파, 병고(丙古)는 창원파다.

- 황성(黃誠)

본관은 평해(平海)이며, 벼슬은 참봉(參奉)이다. 병자호란 때 성 아래에서 국가 안위를 걱정하며 맹세를 다지는 성토를 할 때 그 형과 더불어 넓고 큰마음으로 바다에 몸을 던지려고 하였으나 늙은 아버이를 생각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1640년(인조 18) 매화에 입향하였다.

- 황온인(黃溫仁)

시조(始祖)는 황락(黃洛)이며 평해 황씨(平海黃氏) 갑고(甲古) 제1손으로, 관(官)이 금오장군(金吾將軍) 검교태자(檢校太子)이다. 제2세손 황우정(黃佑精)은 관(官)이 소윤공(小尹公)이며 제3세손 유중(裕中)은 관(官)이 문하시중(門下侍中)이다. 제4세손 검교공(檢校公) 진(璉)과 문하시중(門下侍中) 문절공(文節公) 서(瑞)와 충경공(忠敬公) 용(壟) 3형제가 평해에 세거(世居)하였다.

- 황중숙(黃中淑)

본관은 평해(平海)이며, 대해(大海) 응청(應淸)의 손. 관직은 수직(壽職)으로 가선(嘉善)이었다. 조선조 인조(仁祖) 때 평해(平海)로부터 울진에 입향하였다.

- 황한기(黃漢基)

본관은 평해(平海)이며, 양무공(襄武公) 희석(希碩)의 후손으로 조선조 철종(哲宗) 때 평해로부터 울진에 들어왔다.

제3절 세거(世居) 성씨³

1. 진주 강씨(晉州姜氏)

- 강모로(姜模老)

입향 연도는 1670년(현종 11),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시조는 장군(將軍) 강이식(姜以式)이고, 분파조는 군수공(郡守公) 강자신(姜子愼)이다. 생계곤란으로 진주에서 부자가 함께 울진군 후포로 이거(移居) 입향하였다. 종사랑(從仕郎)을 하였다고 한다. 묘소는 울진군 후

3. 입향 성씨와 인물은 가나다순으로 정리했다.